

대(對)테러리즘 분야 연구경향 분석

– 한국테러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 of Counter-Terrorism

– Focused on the Korean Association Terrorism Studies –

Dae Sung Lee*, Sang Il Ryu**

School of Police Administration, Dong-Eui University, 176 Eomgwang-ro, Busanjin-gu, Busan, Korea

Abstract

Since the 9/11 terror attacks in the U.S., Western countries, led by the U.S., have waged wars against Afghanistan and Iraq and Korea also dispatched forces twice. As a result, the number of victims of international terrorism has increased among Koreans and various countermeasures have been discussed. In this situation, the Korean Association for Terrorism Studies had its inaugural general meeting on February 1, 2008, and has held 12 academic seminars until now, beginning with the 1st one on July 15, 2008. This study analyzed research trends by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method using theses presented in the seminars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errorism Studies from 2008 to 2013,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keyword centrality value was high for keywords “terror,” “counter-terror,” and “countermeasure.” With regard to difference among the years, newly introduced high-centrality keywords were “hostage” in 2008, “cyber,” “Somalia,” and “sea” in 2009, “North Korea” in 2010, “homegrown terrorism” in 2011, “investigation” in 2012, and “international” in 2013. Second, highly frequent keywords were “hostage” and “self-administration police” in 2008, “North Korea” in 2010, and “multicultural” in 2011. In addition, “investigation” was frequent in 2012, and “law” in 2013. In particular, keywords such as “counter-terrorism” and “terrorism”

* Tel. +82-51-890-4295. E-mail. dorian3145@daum.net

** Tel. +82-51-890-4291. E-mail. samuel@deu.ac.kr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May. 20, 2014 / Revised: Jun. 13, 2014 / Accepted: Jun. 23, 2014

were highly frequent in 2011 and thereafter.

Key words: terror, terrorism, counter-terrorism, tendencies of study

국문초록

미국의 9·11테러리즘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대상으로 대(對)테러리즘 전쟁을 수행하였고, 한국도 두 차례에 걸쳐 파병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테러리즘 피해자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점인 2008년 2월 1일 한국테러학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었고, 2008년 7월 15일 1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2회의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테러학회 학술세미나를 처음 개최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을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을 통하여 연구흐름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 “테러리즘”, “대테러”, “대응방안” 등의 주제어 중심성 값이 높게 나타났고, 차이점은 각 시기별로 등장한 주제어인 2008년 “인질”, 2009년 “사이버”, “소말리아”, “해상”, 2010년 “북한”, 2011년 “자생테러”, 2012년 “수사”, 2013년 “국제” 등의 키워드 중심성 값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연도별 차이점은 2008년 “인질” 등의 빈도가 높았고, 2010년 “북한” 등의 빈도가 높았으며, 2011년 “다문화” 등의 빈도가 높았다. 그리고 2010년 “수사” 등의 빈도가 높았고, 2013년 “법” 등의 빈도가 높았다. 특히 “대테러”, “테러리즘” 등의 주제어는 2011년 이후부터 빈도가 높았다.

주제어: 테러, 테러리즘, 대(對)테러리즘, 연구경향

1. 서론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국제테러리즘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의 알 카에다(Al-Qaeda)조직에 소속된 테러범(terrorist)들은 미국 민간항공기 4대를 납치(aircraft hijacking)하여 이 중에서 두 대의 항공기는 맨해튼(Manhattan)에 있는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의 남쪽과 북쪽을 공격하여 붕괴시켰다. 세 번째 항공기는 펜타곤(Pentagon)을 향했으며, 네 번째 항공기는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농촌에 추락하였다. 미국은 9·11테러리즘으로 거의 3,000여명이 사망하였고, 재산상 손해는 세계무역센터 건물(World Trade Tower) 11억 달러·테러리즘 대처를 위한 긴급예산 400억 달러·재난극복예산 111억 달러, 이외의 각종 경제활동 등을 추가한다면 그 가치는 환산하기 어려울 것이다(<http://ko.wikipedia.org/wiki>).

미국의 9·11테러리즘 이후, 미국은 대테러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7일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탈레반(Taliban) 정권을 축출하였고, 2003년 3월 20일 이라크(Iraq)를 공격하여 2003년 12월 13일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 al-Majid al-Awja)을 검거하여 테러지원국에 확실한 메시지(message)를 전달하였다. 한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국가들의 대(對)테러전쟁 수행 지원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파병하였다. 이로 인하여 2003년 11월 이라크 북부 티크리트(Tikrit) 인근 고속도로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장 괴한의 총격을 받아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

였고, 2004년 4월 8일에도 한국인 목사 7명이 납치(拉致)된 후에 석방되었으며, 2004년 6월 23일 이라크 팔루자(Fallujah)에서 한국인 김○○이 납치되었다가 살해되었다(이대성, 2005: 107). 그리고 2007년 7월 19일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선교단원 23명이 탈레반 무장세력(武裝勢力)에 납치·억류되어 2명이 살해되고 21명이 석방되었다. 이와 같이 해외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테러리즘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다양한 대책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점인 2008년 2월 1일 한국테러학회 창립총회가 있었고, 동년 7월 5일 한국테러학회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연구는 국내·외에서 대(對)테러리즘과 관련하여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테러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의 학문적 연구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대(對)테러리즘 관련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한국테러학회 학술세미나 연혁

한국테러학회 학술세미나는 매년 2회 개최되고 있는데, 그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테러학회는 2008년 7월 15일 국민대학교에서 제1회, 동년 11월 15일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제2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2009년 4월 25일 한국경제신문사에 제3회, 동년 10월 31일 백범기념관에서 제4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2010년 6월 4일 국회도서관에서 제5회, 동년 11월 26일 제6회 학술세미나를 대검찰청에서 개최하였다. 2011년부터는 하계 학술세미나를 대학교 등에서 개최하였고, 동계 학술세미나는 대검찰청에서 개최하게 되었다(<http://www.ka-ts.or.kr/conference/write>).

2. 한국테러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테러학회 학술세미나 대주제를 살펴보면, “21세기 테러와 대응방향”, “테러방지와 치안질서유지를 위한 과제와 전망”,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국제 해상테러 발생과 대책”, “G20 정상회의에 대비한 테러예방 및 안전 확보”, “한국의 테러발생 가능성과 대비전략”, “글로벌 사회에서의 주요 현안 과제”, “테러리즘의 환경변화 진단과 대응방안”, “초국가적 테러리즘과 인간안보”, “테러리즘 환경변화와 대응전략” 등이 있었다. 한국테러학회는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안보방재포럼 등과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고, 후원사로는 KT텔레캅, (주)코오롱 아니넷, (도)대영문화사, (도)법문사 등이 있었다.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은 평균 3-4편 정도였고, 학술세미나 섹션(section)은 사회자 1명, 발표자 1명, 그리고 토론자 2명으로 구성되었다(<http://www.ka-ts.or.kr/board/gallery>).

III. 조사 설계

1. 언어네트워크 방법론

인간은 언어를 매개로 자신의 사고와 인식을 표현하며, 이를 통해 타인의 인식을 파악하기 때문에 (Pinkley, 1990: 117-126) 언어에 담긴 메시지(message)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통적 내용 분석방법론은 연구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연구자가 임의로 만든 분석 항목에 의존하게 된다. 또한 노동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외적 타당성이 제한되어 연구자 성향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박한우·Leydesdorff, 2004: 1377-1388; Rice & Danowski, 1993: 369-397). 이러한 전통적 내용분석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것이 언어네트워크 방법론 (semantic network analysis)이다(박한우·Leydesdorff, 2004: 1377-1388). 최근 들어 국내 연구자들 사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언어네트워크 방법론(배연석, 2001; 신준섭·김지수, 2011: 173-203; Lim, 2002: 328-366)은 KrKwic(Korean Key Words In Context)프로그램과 NetMiner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하여 사용하는 분석기법이다(박한우, 2006; 사이람, 2010; 김용학, 2004).

2. 분석 대상 및 분석방법과 절차

1) 분석대상

대(對)테러리즘 분야의 연구경향 분석을 위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테러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에서 발표된 48편을 대상으로 하여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분석대상 논문

연도	분석대상 논문
2008년(1,2회)	9편
2009년(3,4회)	5편
2010년(5,6회)	9편
2011년(7,8회)	10편
2012년(9,10회)	8편
2013년(11,12회)	7편
합계	48편

2) 분석방법과 절차

대(對)테러리즘 분야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한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의 연구절차는 3가지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 탐색적 자료 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을 통하여 자료집 논문의 주제를 자료화·유형화 하였고 둘째, 핵심단어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파악하기 위해 KrKwic 프로그램으로 1차적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셋째, KrKwic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핵심단어에 대한 행렬 매트릭스 방정식을 완성하여 넷째, 이를 바탕으로 NetMine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핵심단어 간의 사회 네트워크 연결망 내지 결합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사이람, 2010; 김용학, 2004).

IV. 분석결과

1. 『한국테러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의 연구주제어 분석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테러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의 연구주제어를 분석한 결과는 “테러”, “대응” 등의 주제어가 빈번하게 언급되었고, 이외의 각 연도별 차이를 보이는 주제어는 다음과 같다.

<표 2> 주제어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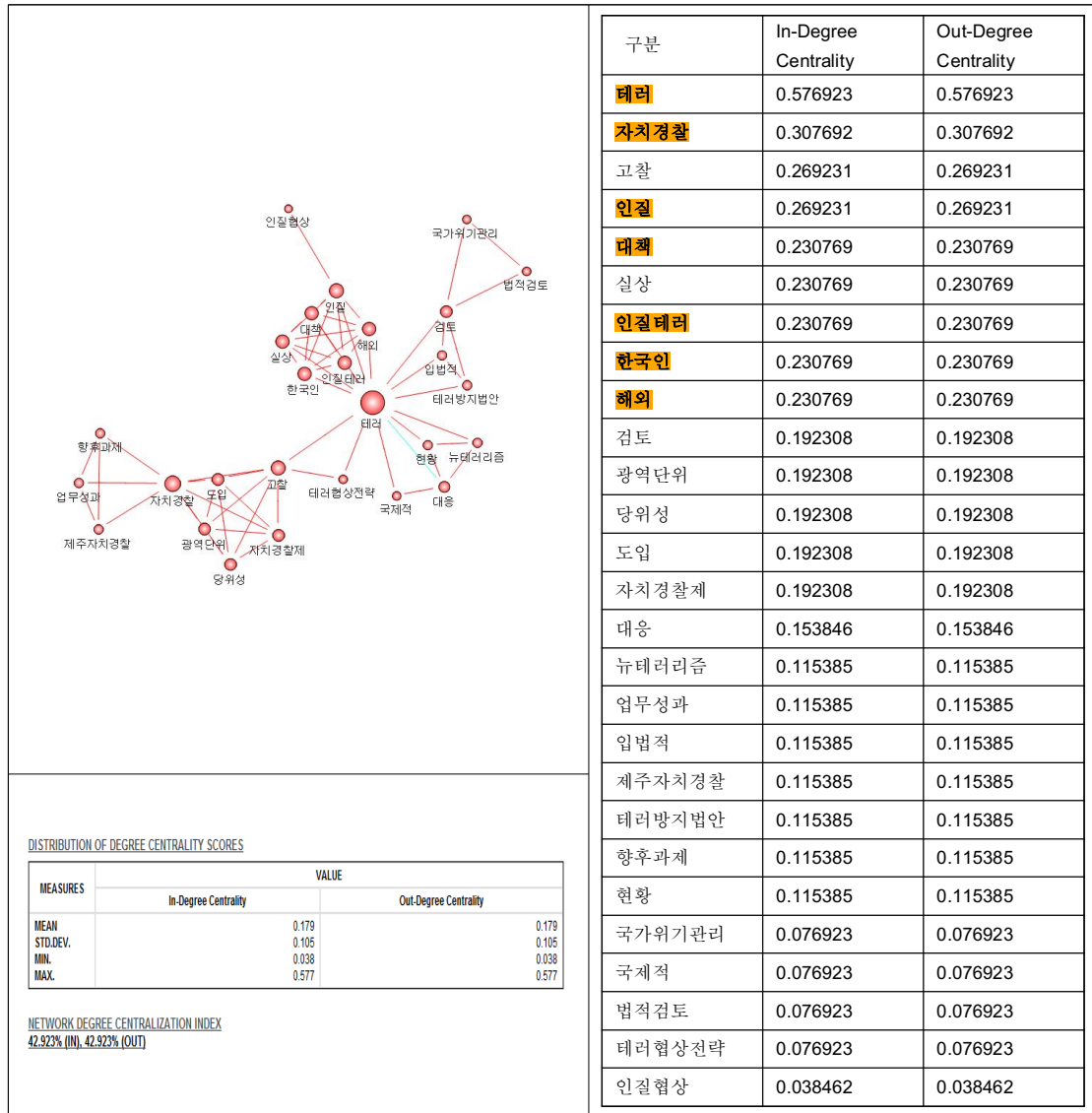
빈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2008~2013
↑ 높음	테러	대응	테러	테러	테러	대응	테러
	고찰	테러	대비	다문화	테러리즘	테러	대응
	대응	대응방향	대응방안	대테러	대테러	법	테러리즘
	인질		방안	다문화사회	수사	테러리즘	대테러
	자치경찰		북한	법	초국가적	대응전략	대응방안
			전략	테러리즘	활동	환경변화	고찰
↓ 낮음			테러가능성				국가
							국제
							법적
							현황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은 “인질”, “자치경찰”의 빈도가 높았고, 2010년은 “북한”, “전략”, “테러가능성”의 빈도가 높았으며, 2011년은 “다문화”, “대테러”, “법” 등의 빈도가 높았다. 2012년은 “수사”, “초국가적” 등의 빈도가 높았고, 2013년은 “법”, “테러리즘”, “대응전략”, “환경변화”의 빈도가 높았다. 특히 “대테러”, “테러리즘” 등의 주제어는 2011년 이후 빈도가 높았다.

2.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통한 『한국테러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연구경향의 패턴 분석

1) 2008년 『한국테러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의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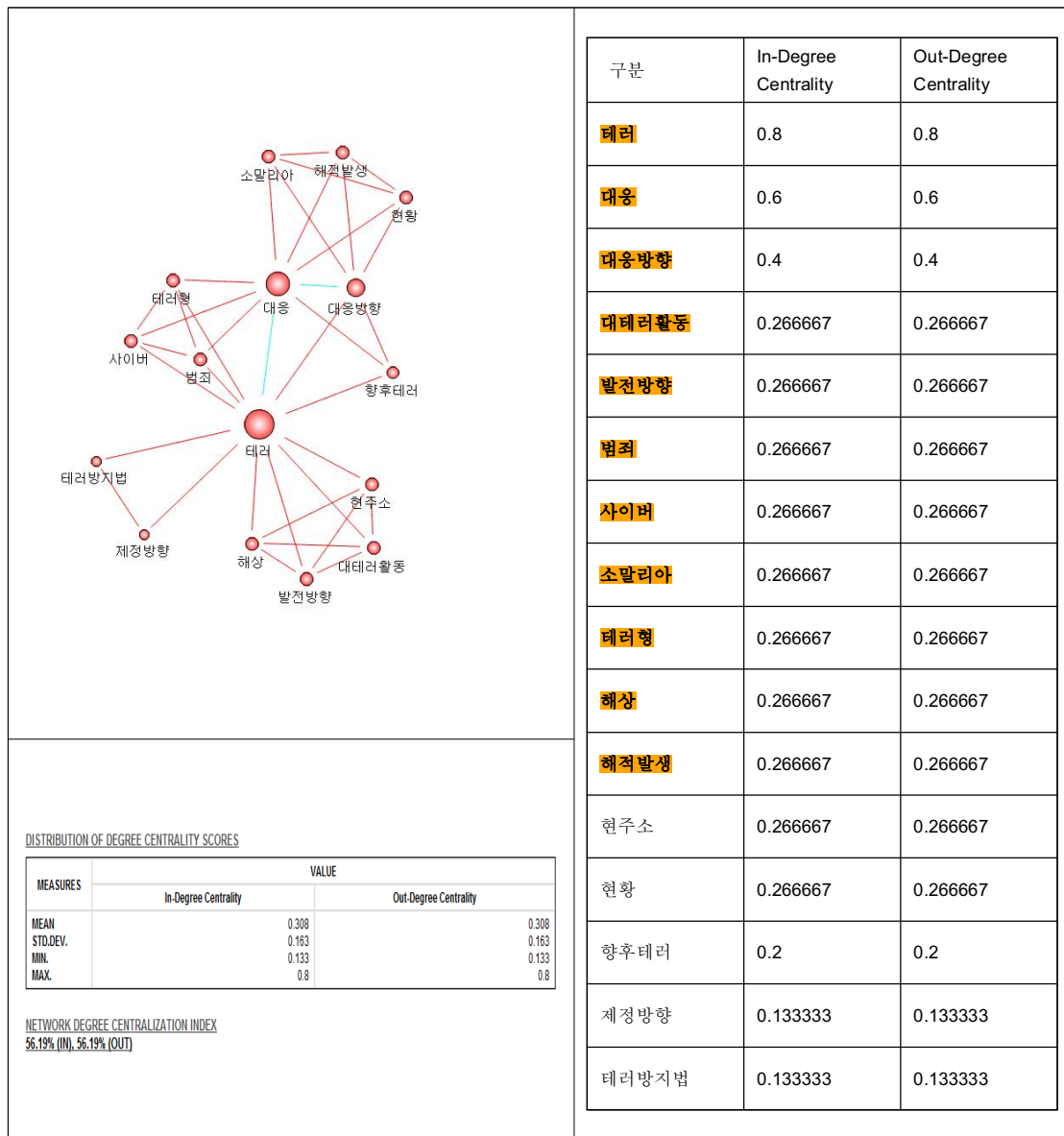
2008년 『한국테러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언어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테러”, “자치경찰” 등과 같은 주제어 중심성 값이 높게 나타났고, “인질”, “대책”, “인질테러”, “한국인” 등의 빈도가 높았다.



<그림 1> 2008년 분석결과

2) 2009년 『한국테러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의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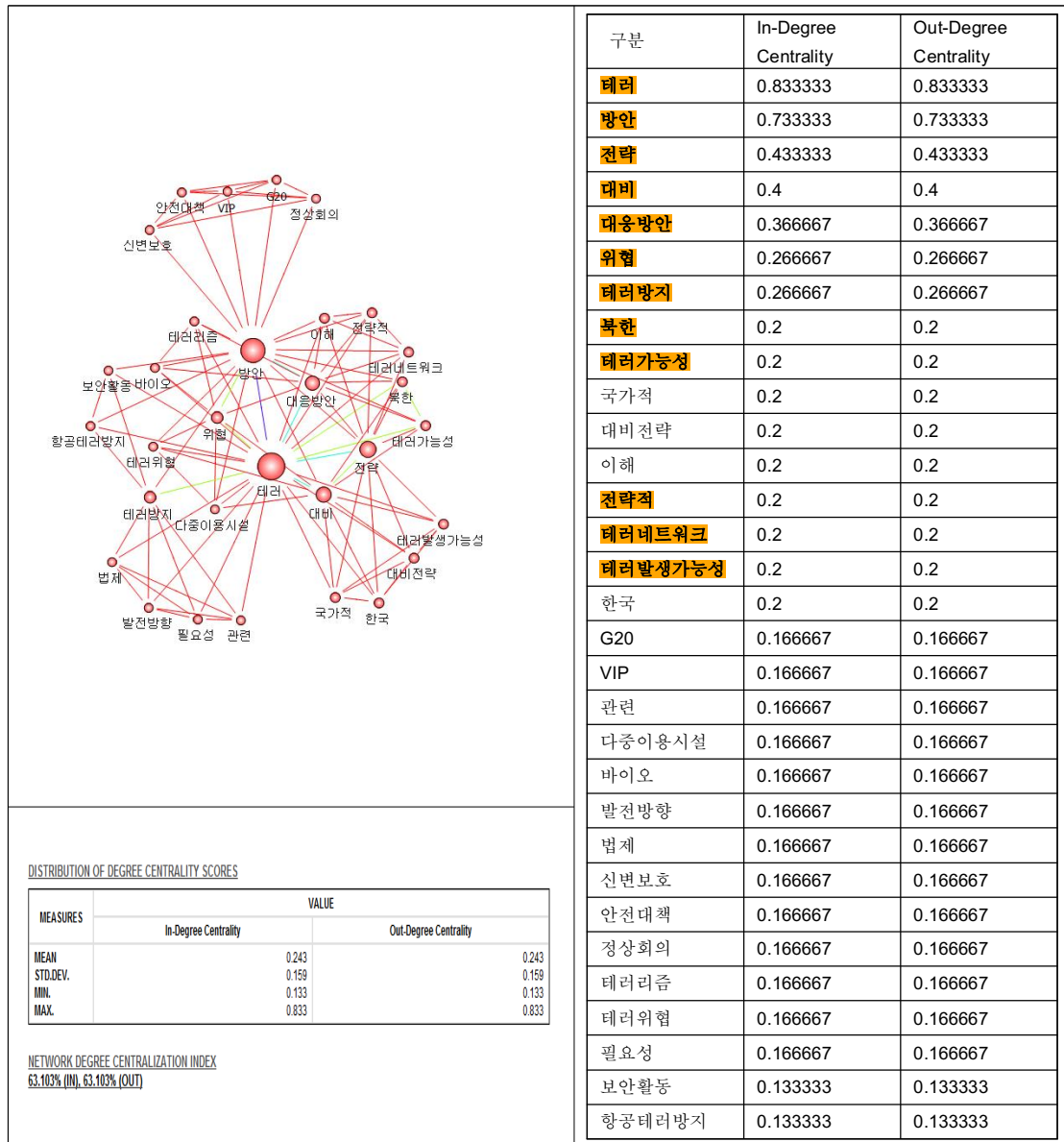
2009년 『한국테러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언어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테러”, “대응” 등과 같은 주제어 중심성 값이 높게 나타났고, “대응방향”, “대테러활동”, “범죄”, “사이버”, “소말리아”, “해상” 등의 빈도가 높았다.



<그림 2> 2009년 분석결과

3) 2010년 『한국테러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의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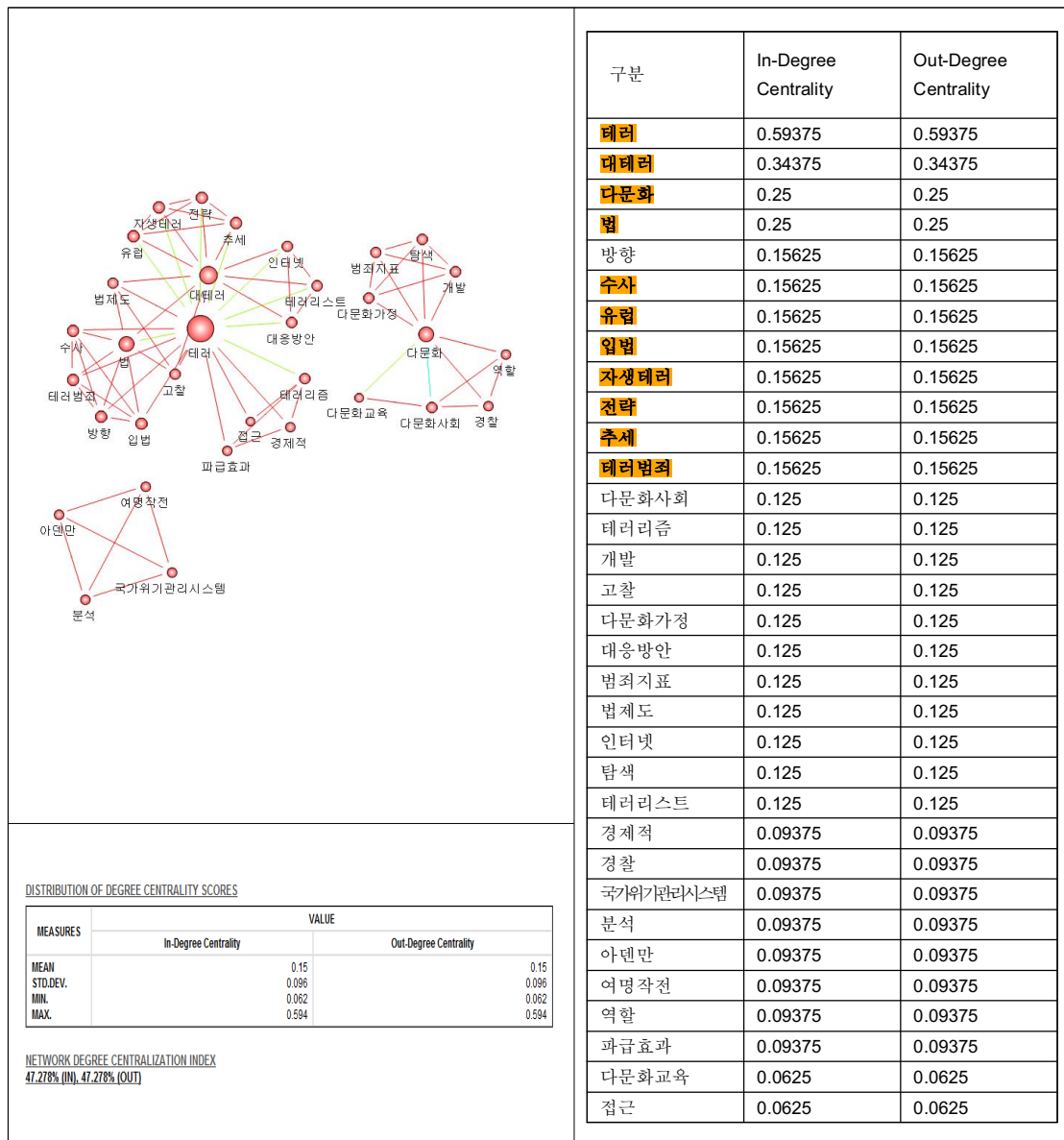
2010년 『한국테러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언어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테러”, “방안” 등과 같은 주제어 중심성 값이 높게 나타났고, “전략”, “대비”, “대응방안”, “북한”, “테러네트워크” 등의 빈도가 높았다.



<그림 3> 2010년 분석결과

4) 2011년 『한국테러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의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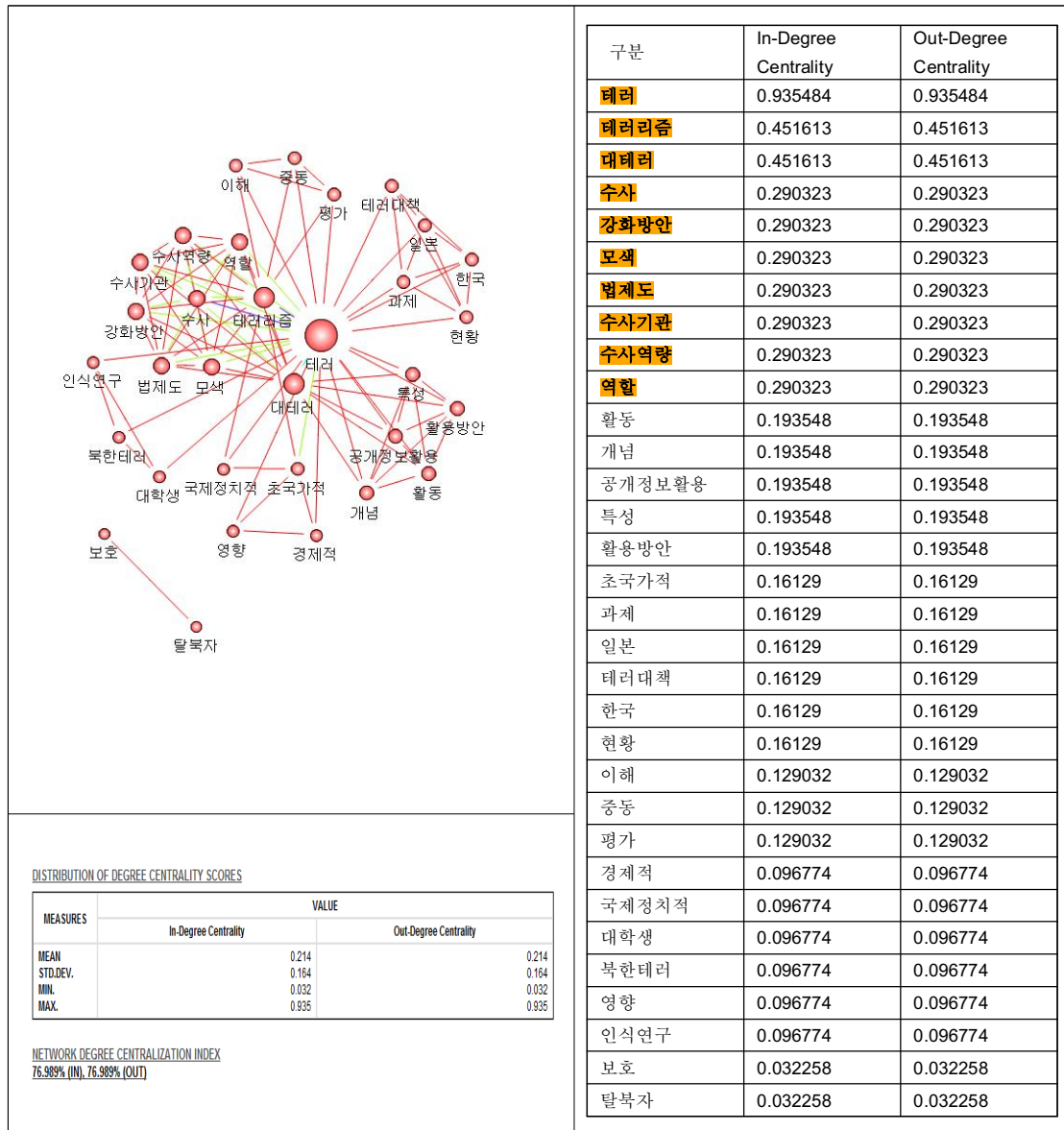
2011년 『한국테러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언어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테러”, “대테러” 등과 같은 주제어 중심성 값이 높게 나타났고, “다문화”, “법”, “입법”, “자생테러” 등의 빈도가 높았다.



<그림 4> 2011년 분석결과

5) 2012년 『한국테러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의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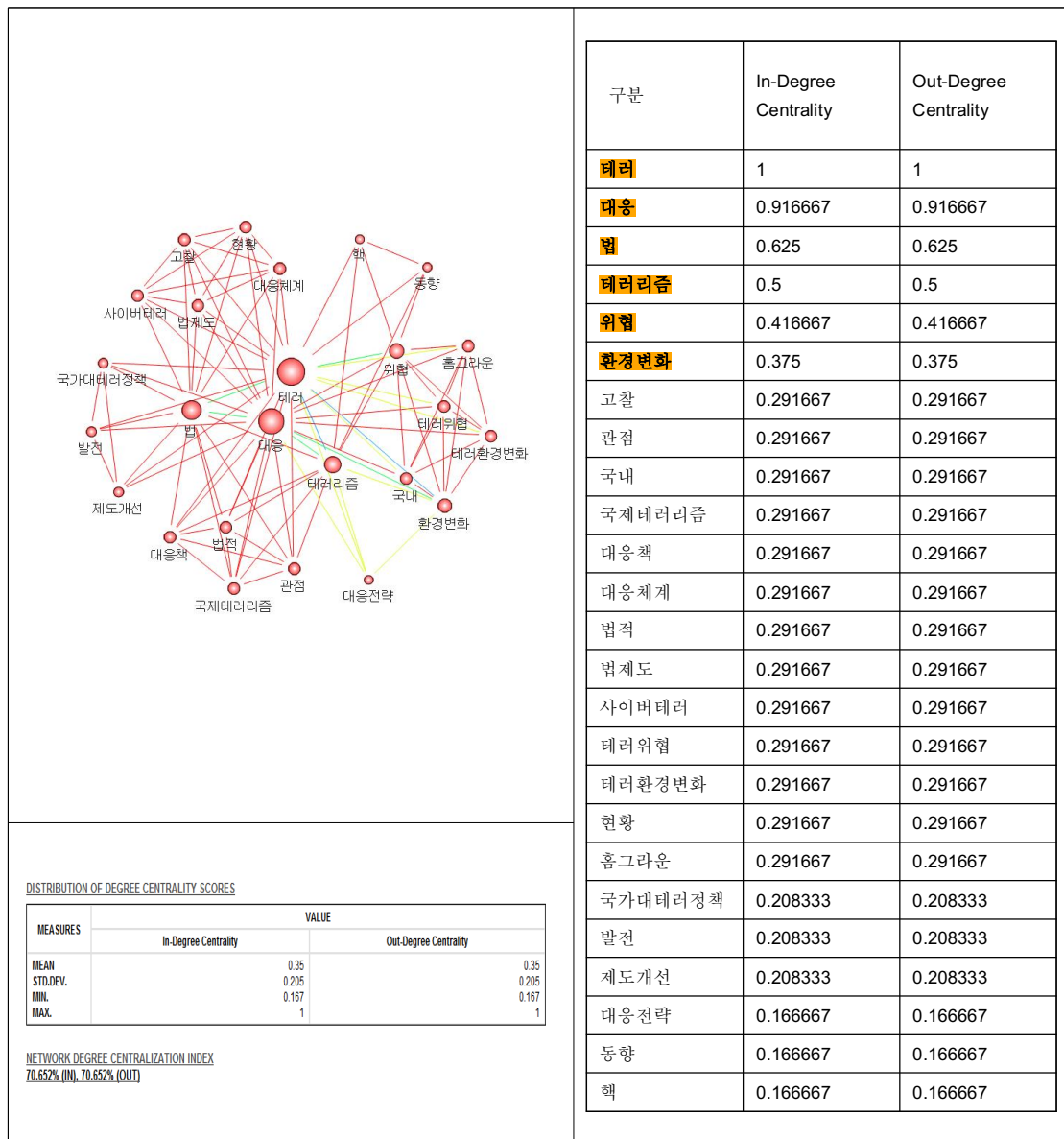
2012년 『한국테러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언어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테러”, “테러리즘”, “대테러” 등의 주제어 중심성 값이 높게 나타났고, “수사”, “수사역량” 등의 빈도가 높았다.



<그림 5> 2012년 분석결과

6) 2013년 『한국테러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의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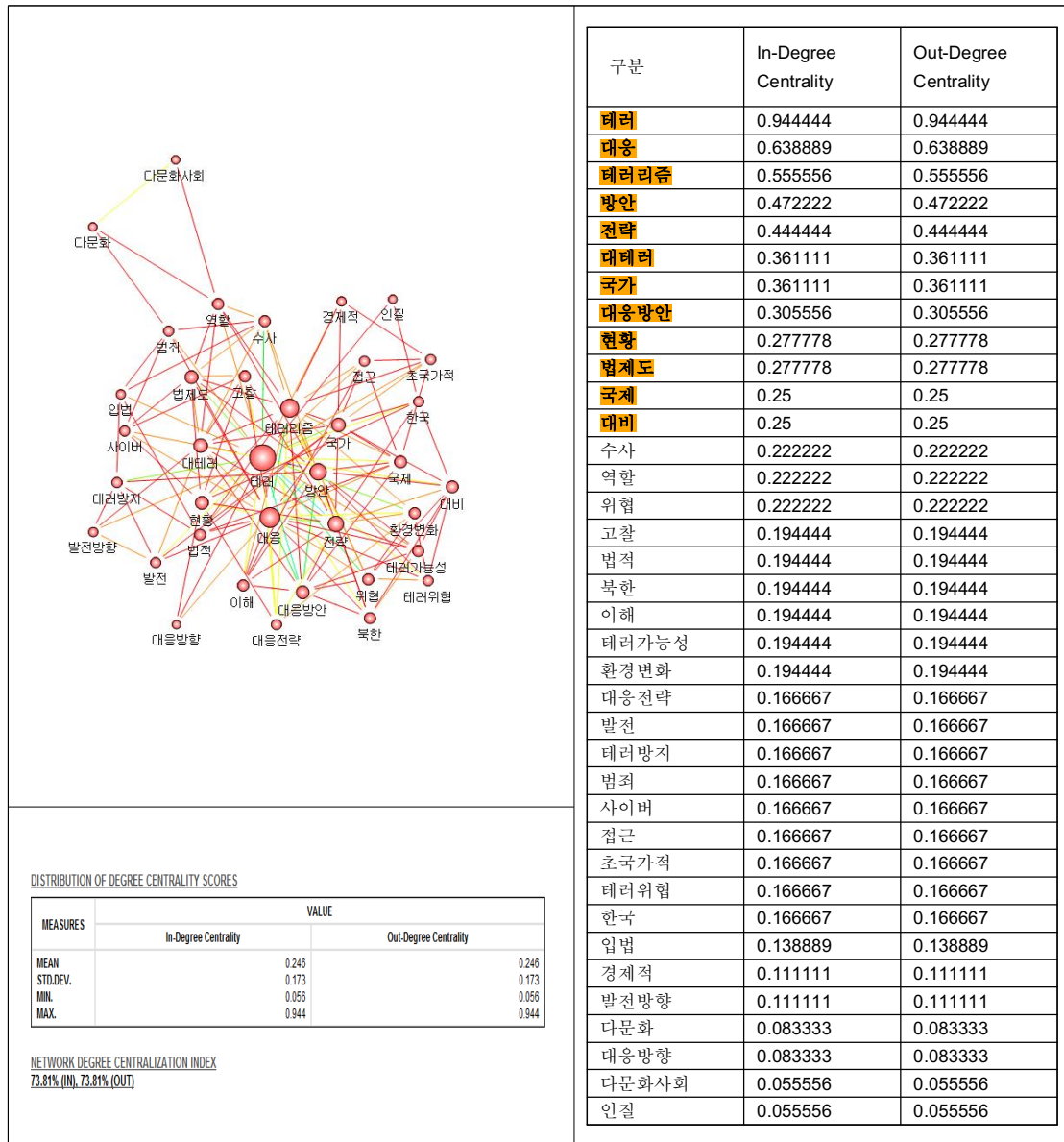
2013년 『한국테러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언어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테러”, “대응”, “법”, “테러리즘” 등과 같은 주제어 중심성 값이 높게 나타났고, “위협”, “환경변화” 등의 빈도가 높았다.



<그림 6> 2013년 분석결과

7)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테러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의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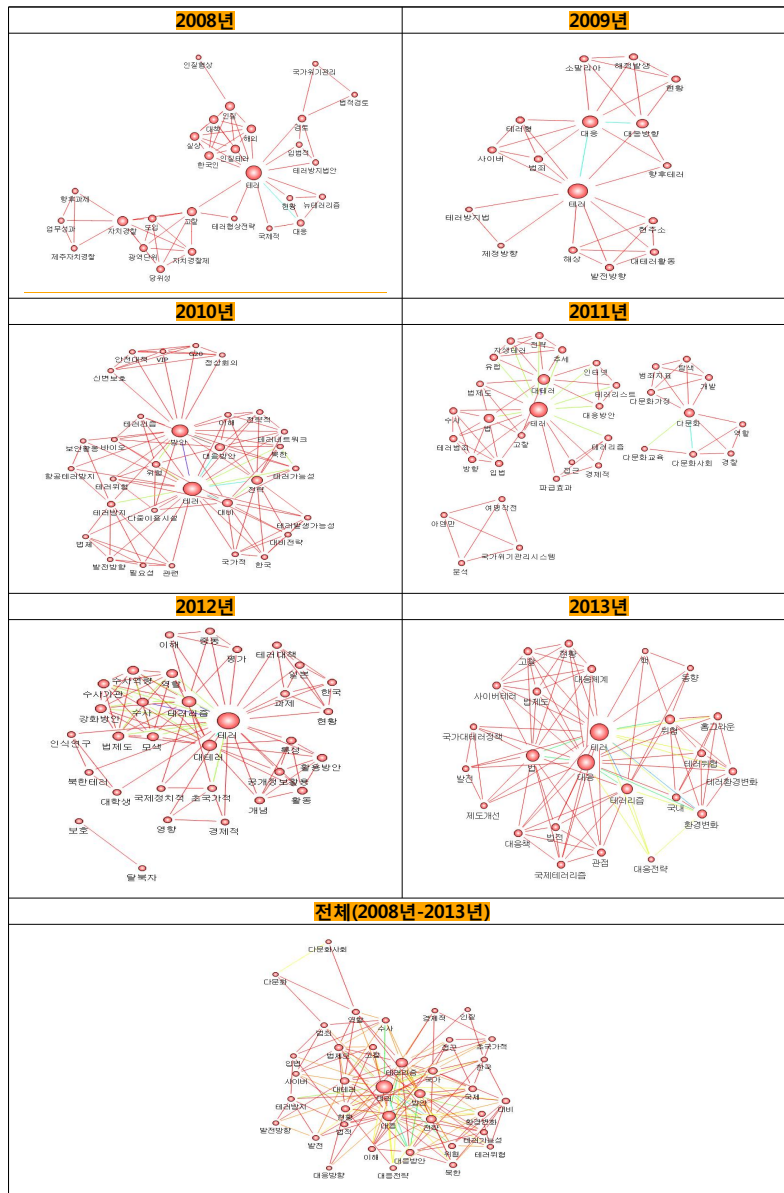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테러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언어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테러”, “대응”, “테러리즘”, “대테러”, “대응방안” 등과 같은 주제어 중심성 값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7> 전체(2008~2013) 분석결과

8) 비교 및 시사점

전체적인 공통점은 “테러”, “대응”, “테러리즘”, “대테러”, “대응방안” 등과 같은 주제어 중심성 값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고, 차이점은 각 시기별로 등장하게 되는 주제어가 있다는 점이다. 즉, 2008년에는 “인질”, 2009년에는 “사이버”, “소말리아”, “해상”, 2010년에는 “북한”, 2011년에는 “자생테러”, 2012년에는 “수사”, 마지막, 2013년에는 “국제” 등의 키워드 중심성 값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8〉 비교 및 시사점

V. 결론

이 연구는 한국테러학회가 창립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발간된 학술세미나 자료집의 연구흐름 분석을 하였다. 우선, 동 학술세미나 자료집의 연구주제어를 살펴보면, “테러”, “대응” 등이 빈번하게 언급되었고, 이를 제외하고 각 연도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2008년은 “인질”, “차치경찰” 등의 빈도가 높았고, 2010년은 “북한” 등의 빈도가 높았으며, 2011년은 “다문화” 등의 빈도가 높았다. 2012년은 “수사” 등의 빈도가 높았고, 2013년은 “법” 등의 빈도가 높았다. 특히 “대테러”, “테러리즘” 등의 주제어는 2011년 이후부터 빈도가 높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테러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의 분석결과는 전체적으로 “테러”, “대응”, “테러리즘”, “대테러”, “대응방안” 등의 주제어 중심성 값이 높게 나타났고, 차이점은 각 시기별로 등장한 주제어인 2008년 “인질”, 2009년 “사이버”, “소말리아”, “해상”, 2010년 “북한”, 2011년 “자생테러”, 2012년 “수사”, 2013년 “국제” 등의 키워드 중심성 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이 짜임새 있는 연구방법론으로서 확고히 자리를 잡지 못하는 까닭에 분석결과가 다소 실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테러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언어네트워크 주제어 중심성 값에 나타난 핵심주제어와 빈도수가 높은 단어에 대한 부연설명은 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대(對)테러리즘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 또는 학술단체에서 발간한 전문학술지 논문도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용학. 2004. 사회 연결망 이론. 박영사.
- 박한우, Leydesdorff, L. 2004. 한국어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프로그램의 이해와 적용: Daum.net에서 제공된 지역혁신에 관한 뉴스를 대상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6(5): 1377-1388.
- 박한우. 2006. 한국어 메시지의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소프트웨어의 소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특강자료집.
- 배연석 역. 2001. 미디어 내용분석 방법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사이람. 2010. 넷마이너에 의한 사회네트워크 분석. 사이람.
- 신준섭 · 김지수. 2011.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갈등 프레임 분석: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3): 173-203.
- 이대성. 2005.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9: 105-135.

- Lim, Elvin T. 2002. Five Trends in Presidential Rhetoric: An Analysis of Rhetoric from George Washington to Bill Clinton,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32(2): 328-366.
- Pinkley, R. L. 1990. Dimensions of Conflict Frame: Disputant Interpretations of Conflic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5: 117-126.
- Rice, R. E. and J. A. Danowski. 1993. Is It Really just like a Fancy Answering Machine? Comparing Comments and Semantic Networks about Voice Mail. *Journal of Business Communication*. 30: 369-397.
- <http://www.ka-ts.or.kr/board/gallery>; 2014년 4월 3일 검색.
- <http://www.ka-ts.or.kr/conference/write>; 2014년 4월 3일 검색.
- <http://ko.wikipedia.org/wiki>; 2014년 4월 2일 검색.

이대성: 동국대학교에서 형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한국의 테러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04년), 가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전임강사를 역임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테러리즘과 관련된 대(對)테러법률, 대(對)테러정책 등이며, 주요 논문은 “북한에 의한 테러유형과 대응방안(2004)”,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2005)”, “테러리즘에 관한 규범학적 이해와 접근(2007)”, “테러범죄 동향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헌법적 연구(2008)”, “해외인질 테러범죄에 관한 법적 연구(2009)”, “한국을 대상으로 한 뉴테러리즘의 분석 및 정책적 제언(2010)”, “국제스포츠이벤트 테러리즘의 분석과 향후전망(2011)”, “북한의 대남테러리즘 분석과 향후전망: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집권기를 중심으로(2012)”, “북한의 전자기파(EMP)위협에 대한 검토(2013)” 등이 있다(dorian3145@daum.net).

류상일: 충북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논문: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체계, 2007년),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 동의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재난관리, 소방행정, 재해구호, 사회네트워크 등이 주요 관심분야이며, 주요 저서로는 재해구호복지론(2012, 공저), 소방행정학 개론(2011, 공저), 주요 논문으로는 “행정학에서 재난관리분야의 학문적 연구경향(2007)”, “네트워크 관점에서 지방정부 재난대응과정 분석: 미국의 허리케인과 한국의 태풍 대응사례를 중심으로(2007)”,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네트워크 분석(2008)”,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요인과 직무만족간의 관계(2009)”, “소방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소방정책론 정립방안(2010)”,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효율적 소방력 개선방향(2011)”, “한국위기관리 연구경향 분석(2012)”, “한국 위기관리 연구경향분석Ⅱ: 소방행정 분야를 중심으로(2013)”, “소방방재청장의 정책 가치지향을 통해본 재난관리정책의 변화추이(2014)” 등이 있다(samuel@deu.ac.kr).